

투데이 칼럼

원전소재지에 공론화실행기구 구성 자율권 부여 반대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은 지역단위공론화 실행기구 구성에 있어 원전소재지인 관할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팀장

원전소재지 주민들은 원전소재지에 실행기구 구성 자율권 부여에 반대한다. 소재지의 구성 자율권 못지않게 비소재지의 자율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권 부여하면 이야기는 심각해진다. 비소재지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할지자체에 구성자율권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전소재지는 비소재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자율성은 부당한 강압이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다.'

재지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소재지 기초지자체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민의를 좇을 수밖에 없다.

사설

풍수해 저감사업에 연평균 6699억 원 투입

도내 풍수해 피해가 걱정이다. 저번에 폭우 피해가 전국 규모의 절반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도 적지 않은 비가 내렸다.

피해 복구는 반드시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상식적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이 있었기에 여기 특별히 말하는 바이다.

탄소산업의 성장 확대는 시대의 요구

전북 탄소산업의 성장 확대는 시대의 요구이다. 적음분야의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진척이 궁금하다.

북이 한국 최고의 선두주자이기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바람이 희망사항에 그칠 것 같아서 걱정이다.

기자수첩

“기자 모른다”는 무주군의회 부의장

반딧불 축제 행사에 무진장 완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우어 군민들이 환호(歡呼)의 갈채를 보냈다.



전문선 지방부 무주주재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군 의원 자격 미달입니다”라고 자평(自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을 보좌하는 L 모 의원은 자신을 위한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 지역기자를 모르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다면 홍보를 위해서라도 지역기자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인물이 군 의회 부의장을 하는 것도 무주군민의 자존에 먹칠하는 수치(羞耻)라고 할 수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